

Youth Workers' Experiences and Required Competencies under COVID-19

Jeon, Young Uk¹⁾ · Sohn, Kyu Tae²⁾ · Lee, Mi Na · Lee, Ji Eun ·
Jeong, Eun Jung · Cho, Yoo Dam · Choi, Sun Mi³⁾

¹⁾Associate Professor, Dept. of Youth Educ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²⁾Associate Research Fo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³⁾Master's Student, Dept. of Youth Education,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Background: Under COVID-19, youth institutions and facilities were required to prevent infections and preemptive responses to youth. Among youth workers, the perception that youth activities should be changed as existing face-to-face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is limited, and various countermeasures have been sought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youth institutions. Organizational changes caused by environmental changes affect the thinking and behavior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o effectively adapt to environmental changes and respond to challenges, efforts to identify and develop not only the experience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but also their competencies are required.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required competencies of youth workers under COVID-19.

Methodology/Approach: Eight youth workers who experienced the COVID-19 situation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in the stud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from November 26 to December 11, 2020.

Findings/Conclusion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stem from the demand for youth workers to develop and operate unfamiliar non-face-to-face activities. Second, it was found that as youth activities proceeded non-face-to-face, access to programs could increase and an environment in which students can concentrate on programs could be created. Third, to effectively deliver youth activity programs in an online environment, youth workers need to cultivate the ability to develop non-face-to-face youth instructional content. Fourth, it was found that effective guidelines and policy support to implement youth activities newly required after COVID-19 are needed.

Implications: It wa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a re-education program for youth workers, add a non-face-to-face activity area to the subject for youth instructor qualification examination, manage changes in youth institutions, and conduct research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the youth field. Also, a study on the digital competencies of youth leaders and a metho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youth programs in non-face-to-face environments were needed.

Keywords: Youth worker, COVID-19, Experiences, Competencies

Corresponding Author: Sohn, Kyu Tae

Associate Research Follow,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Republic of Korea, 30147

ORCID: <http://orcid.org/0000-0003-2176-9831>

Email: terret@krivet.re.kr

Received: March 03, 2021 Revised: March 24, 2021 Accepted: March 25, 2021 Publication: March 31,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자의 경험과 요구되는 역량

전영욱¹⁾ · 손규태²⁾ · 이미나 · 이지은 · 정은정 · 조유담 · 최선미³⁾

¹⁾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조교수 · ²⁾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³⁾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학과 석사과정

배경: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기관과 시설은 청소년의 감염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요구받았다. 청소년지도자 사이에서는 기존의 대면 중심의 활동과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청소년 활동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청소년 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었다. 환경변화로 인한 조직의 변화는 조직구성원의 생각과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도전과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경험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역량을 규명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적: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의 경험과 요구되는 역량을 탐구하고자 한다.

방법론/접근: 코로나19 상황을 경험한 8명의 청소년지도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결과/결론: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청소년지도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활동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는 요구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프로그램 접근성이 높아지고,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자들은 비대면 청소년 활동 콘텐츠를 개발하는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요구되는 청소년 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청소년지도자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을 위한 이수 교과목에 비대면 활동 영역 추가, 청소년 기관의 변화 관리 및 청소년 현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 수행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자의 디지털 역량에 관한 연구, 비대면 환경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주요어: 청소년지도자, 코로나19, 경험, 역량

교신저자: 손규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ORCID: <http://orcid.org/0000-0003-2176-9831>

Email: terret@krivet.re.kr

투고일: 2021. 03. 03. **심사일:** 2021. 03. 24. **게재확정일:** 2021. 03. 25. **발행일:** 2021. 03. 31.

I. 서론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 1년간 3차례의 대유행이 있었다. 2021년 2월 현재, 전 세계에서 의료체계가 가장 효율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등[1], 1년 전 혼란스러운 상황에 비하면 비교적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을 거치면서 사회 시스템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는 청소년에게도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 사상초유의 개학연기와 단계적 온라인 개학, 원격수업, 출석학생 수 조정 등으로 청소년들은 혼란 속에서 생활하였으며, 일상에 큰 변화와 적응의 문제로 인해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다[2].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와 사회적 격리(social isolation)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자원의 차이를 부각시켜 청소년 간 학습 및 교육격차를 더 크게 할 것으로 보인다[3]. 실제,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9%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이후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하였으며[4], 경기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원격교육의 환경의 차이가 나타났다[5].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은 불안함과 걱정의 감정을 느끼며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6, 7]. 2020년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졌던 3월부터 가족문제와 정신건강 영역의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8].

청소년만큼 청소년 활동 현장도 혼란스러웠다. 청소년 기관과 시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요구받았고,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에 따라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되었으며, 일부 청소년 기관은 코로나19 무증상 해외입국자의 임시 격리시설로 활용되기도 하였다[9]. 기존의 대면 중심의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청소년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활동방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청소년 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안이 모색되기도 하였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청소년 활동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정상적(normal)’이라고 인식되었던 청소년활동을 잠시 멈추고 그것을 평가하며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례(前例)가 없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중심의 청소년 활동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이전부터 제기되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상보다 일찍 급속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지도자들은 체험활동 키트를 비대면 방식으로 배포하여 가정에서도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형태로 진로직업체험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10]. 또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활동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공유 플랫폼을 만들었으며,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11].

온라인 중심의 청소년활동은 지금까지 한계로 인식되던 제한된 청소년 중심의 활동과 참여를 뛰어넘어 다수의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참여 공간에서 능동적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12], 코로나19 이후에도 청소년활동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13]. 그런데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몰입과 참여뿐만 아니라 적절한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분야의 방향과 실천을 모색할 때, 청소년지도자의 현재 상황과 바람직한 모습을 살피는 것은 요구된다.

청소년지도자는 긍정적 관점에서 청소년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문제예방 중심의 접근을 넘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전문가로서,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physical health), 정서적 건강(emotional health), 지적 역량(intellectual competence), 사회적 역량(social competence), 시민적 역량(civic competence),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 직업적 역량(vocational competence)의 발달을 촉진하고 성취동기(motivation for success)를 유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14].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관점에서 청소년개발을 촉진해야 하는 청소년지도자의 미션(mission)은 변함이 없지만 업무가 수행되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서 청소년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부문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발달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청소년 기관과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지도자들의 경험과 요구되는 역량을 탐구하고자 하며,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청소년지도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이 찾은 기회는 무엇인가, 셋째, 향후 청소년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인가, 넷째, 어떤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가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지도자와 Youth work

청소년지도자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개념에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15]. 청소년들은 이들을 가깝고 중요한 역할모델(role model)로 인식하며, 생각과 행동을 모방하고 동화된다. 협의의 개념에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

등을 기획하고 제공하며 시범을 보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청소년지도자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16]. 여기서 청소년육성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하는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을 포괄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정의하기도 하는데, 김진호 외[17]는 청소년활동지도자를 청소년들의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조력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안내해주는 사람으로 제시하였다.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일을 youth work이라 한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자의 수행업무가 다양하며, 대상 청소년 집단과 접근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youth work을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18, 19]. 그래서 몇몇 학자들과 기관에서는 youth work을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는데, Davies[20]은 청소년이 스스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성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선택하고, 새로운 경험과 학습으로 나아가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지원하며, 청소년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개발하고, 청소년의 선호에 대하여 힘(power)과 조정(control)의 균형을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청소년의 다양성(diversity)과 공정성(equity)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책임영역에서 기회의 균등과 다양성을 촉진하고, 청소년 집단과 협력하며, 과정 중심적이고 성찰적 실천과 관련되어 있다[20].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21]은 youth work을 일반적으로 개인개발, 사회통합 및 청소년의 적극적인 시민권을 위한 도구로서 '학교 밖' 교육의 영역에 속하며, 가장 일반적으로 무형식 또는 비형식 학습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의 주요 목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형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으로, 가치 중심적(value-driven), 청소년 중심적(youth-centric), 자발적(voluntary), 개발적(developmental), 자기성찰 및 비판적(self-reflective and critical), 관계적(relational) 특징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부문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양질의 youth work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기관의 자금 및 조달기회를 지원하고, 장비 및 역량 부족으로 인한 청소년지도자의 디지털 격차(digital gap)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22]. 박선영[13]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활동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과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활동은 디지털 청소년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공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13]. 한편, 고필재, 김용진, 권일남[23]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 활동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할 때 지도자 교육 및 정보공유, 혼합형 활동 여건 조성, 홍보방법의 다양화, 청소년 의견수렴 및 요구반영,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 변화의 5개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역량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하나 이상의 역할(role)을 맡고 있다. 역할은 하나의 사회단위 내에서 주어진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한다[24]. 청소년지도자의 역할도 사회 및 조직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청소년지도자에게 기대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상철 외[25]는 청소년지도자의 역할로서 교수자, 프로그램 개발자, 촉진자, 관리자, 복지사, 상담자, 협력자를 제시하였으며, 장미[26]는 전문가, 교육자, 변화촉진자, 정보제공자, 조직자, 프로그램설계 및 개발자, 프로그램운영관리자, 분석가 등으로 제시하였다. 정미나, 문호영[27]은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청소년 전문가,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평가자, 교육자, 촉진자, 관리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상철[28]은 지도의 전문성에 초점을 둔 청소년지도자의 역할로서 전문가, 프로그램 설계자 또는 개발자, 촉진자, 지역사회 지도자, 과학자 및 예술가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지도자는 자신이 맡은 지도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가장 기본적이며, 그 밖의 역할들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하위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

역량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준거에 따른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동기(motives), 특질(traits), 자기개념(self-concept), 지식(knowledge), 기술(skill) 등 개인의 내적 특성을 말한다[29]. 일반적으로 개인의 내적 특성은 빙산으로 비유되어 설명된다. 지식과 기술은 물 위에 떠있는 얼음조각으로써 비교적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겨진다. 반면, 빙산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얼음이 수면 아래에 있는데 자기개념, 특질, 동기는 이러한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명하거나 개발하기 쉽지 않다[30].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와 실천에서 지식, 기술 및 태도 중심으로 역량과 그 구성요소가 도출되고 정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량은 조직 환경 속에서 직무의 질적 성과나 목표를 달성해 낼 수 있는 조직구성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직의 미션(mission) 및 전략을 달성하고,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창출하는데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를 포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31].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21]은 youth work의 기능별로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요구와 열망 해결’의 기능과 연계된 역량으로는 청소년들과 긍정적이고 비판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능력, 청소년들 삶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 참여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 사업의 기획, 전달 및 평가에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Evrard와 Bergstein[32]는 국제적으로 youth work을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으로 개인 및 집단 학습 촉진, 프로그램 설계, 자원 조직 및 관리, 팀에서 성공적인 협업, 타인과 의미 있게 소통하기, 다문화 능력 발휘, 네트워킹과 옹호, 적절한 변화를 평가하고 실행하기 위한 평가방법 개발의 8

가지로 제시하였으며, 각 역량들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행동도 제시하였다. 한편, 주경필[33]은 미국의 8개 지자체 청소년지도자의 핵심역량 사례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발 및 관리, 전문화를 가장 보편적인 역량요소로 제시하였다.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장미[26]는 문헌연구와 델파이조사를 통해 동기부여, 자기통제, 존중, 예산관리, 프로그램 평가, 타인 육성 및 개발, 홍보, 문제해결력, 계획 수립 및 실행, 자발적 업무처리, 활동환경조성 능력, 정보수집 및 관리, 주의환기, 책임성, 자기 확신을 청소년지도자의 직무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서희정, 구경희, 이은진[34]은 행동사건면접 (behavioral event interview)을 통해 청소년활동설계 역량, 청소년활동실행 역량, 행정업무수행 역량, 팀워크 역량, 전문성개발 역량을 청소년지도자의 활동역량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역량별로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를 제시하였다. 이후, 서정희[35]는 통계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였으며, 5개의 역량, 26개의 지식, 기술, 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130개의 세부지표를 제시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는 상담의 소분류 중 하나로 청소년지도가 제시되어 있으며, 청소년지도는 청소년활동, 청소년상담복지, 진로지원으로 세분류되어 있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사업 기획, 청소년기관 행정지원, 협업체계 구축·운영 등 18개의 능력단위로, 청소년상담복지는 심리평가, 집단상담, 청소년부모상담 등 24개의 능력단위로, 진로지원은 진로개발기획운영, 진로개발역량 진단, 진로개발상담 등 10개의 능력단위로 구성되어 있다[36].

이처럼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연구도 있지만 특정 상황을 중심으로 제시한 연구도 있다. 김영인[37]은 청소년활동지도자와 청소년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활동은 교육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조적 관찰, 개방성, 상상력, 감성지능, 의사소통, 배려와 지원, 공감문화형성 등으로 구성된 공감적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마상욱[38]은 청소년지도자들은 아날로그 감성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감성과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ICT화된 청소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자가 필요하며,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3.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분야 종사자의 경험 및 요구되는 역량

변화(變化)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변화의 개념이 다양하지만 조직의 변화와 개인의 변화는 구분되어 사용된다. 조직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조직 변혁(organizational transformation)이라고 일컫는데, 조직구성원들이 현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조직을 조금 더 좋게 만들거나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 지속되는 변화를 말한다[39]. 개인의 변화는 조직변화가 발생할 때 각 개인이 대응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독특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부(denial), 저항(resistance), 탐색(exploration), 몰입(commitment)의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전형적인 감정 반응(emotional responses)이 나타난다[40]. 코로나19는 청소년기관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자의 경험 및 요구되는 역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보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교육 분야 및 종사자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김혜진[41]은 초등학교 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을 분석하여, 환경적·심리적·실천적·학생 및 학부모 관련 경험과 앞으로의 온라인 수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사의 심리적 경험은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따른 당황스러움, 수업에 대한 부담감, 콘텐츠 제작 관련 기대감, 뿌듯함과 부러움으로 나타났다. 김민정, 김희영, 김남연, 문가영[42]은 유아 대상 원격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원격교육 전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유아 대상 원격교육은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되었으며, 교육의 주체에 대한 혼란이 나타났고, 차용해서 나열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유치원 교사들은 원격교육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원격교육의 현실과 교육신념간의 간극을 느끼고 있으며, 가정의 조력여하에 따라 원격교육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양동석, 조건상, 유은혜[43]는 코로나19에 대처하여 온라인 체육수업을 진행한 5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개학 초기 온라인 체육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꼈으나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수업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제 또 다시 겪을지 모르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신서영, 박창언[44]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었던 온라인 수업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여 규명하였다. 특수교사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에 ‘온라인이라는 공간의 낯섶에 대한 거부감’ 과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로 인한 불안감’을 느꼈으나 차츰 학생들과 새로운 상호작용에 의외의 재미와 반응을 경험하였고, 자신의 전문성이 향상되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윤태성, 류수연, 임경원[45]도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운영하게 된 특수교사의 경험을 연구했는데, 원격수업의 초기에 특수교사들은 많은 부정적 측면이 있었으나 점차 안정화되어 가면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현장실습, 사후지도, 생활지도 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해란, 박창언, 이나영[46]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적장애 특수학교 초등특수교사의 온라인수업 경험을 연구했는데, 특수교사들은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온라인수업의 어려움과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이들에게 있어 학교의 의미와 교육의 방향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다.

임은정, 권수미[47]는 중·고등학교 비대면 음악교과 온라인 원격 수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중등 음악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수업 구성과 방식을 익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음악 교과 수업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로 인식하였다. 한편, 김서진, 문영[48]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 예술교육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함께 교통하는 상태로의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계보경 외[3]는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교사들은 원격수업 설계와 실행을 위해 ‘원격수업 도구 및 기술 활용 능력’, ‘원격수업을 위한 수업자료 제작능력’,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능력’, ‘디지털 시민성, 저작권 등 윤리적 이슈를 고려한 학생지도능력’이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가. 연구참여자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자의 경험과 요구되는 역량을 탐색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자를 유의표집하였다. 유의표집(purposeful sampling)이란 질적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현상을 가장 직접적이고 밀도있게 체험한 조사대상자를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것을 말한다[49]. 이 연구의 참여자는 청소년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지도자 8명이며,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구분	성명	연령대	경력	소속기관	인터뷰 일시	비고
A	김OO	30대	-	○○시청소년재단	2020년 12월 7일	경력 미응답
B	임OO	40대	-	●●시청소년재단	2020년 11월 26일	경력 미응답
C	홍OO	40대	10년	△△△△개발원	2020년 12월 11일	
D	김OO	20대	3년	■■시청소년재단	2020년 12월 4일	
E	문OO	20대	5년	■■시청소년재단	2020년 11월 30일	
F	신OO	50대	5년	희망□□	2020년 12월 3일	비영리민간단체
G	이OO	40대	20년	▲▲시청소년재단	2020년 12월 3일	
H	오OO	50대	21년	◆◆연구소	2020년 12월 3일	비영리민간단체

나.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 일대일 방식으로 개인당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으로 인해 전화 및 실시간 메신저를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가 인터뷰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인터뷰 질문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인터뷰 직전에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의 의의와 중요성을 상기(想起)시킨 뒤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조정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견한 기회, 청소년지도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 바람직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지원 등이었다. 인터뷰는 202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화 인터뷰의 경우 연구참여자의 사전 양해를 얻어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였다.

2. 자료분석

이 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 간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질적 연구의 일반적인 절차에

〈표 2〉 코드별 주제 및 하위주제의 구조

주제	하위주제	코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비대면 프로그램 요구 증대	프로그램 취소, 프로그램 축소, 시설 폐쇄, 비대면 요구 증대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어려움	컨텐츠 제작 어려움, 원격 체험수업 어려움
	상호작용 저하	소통 부족, 모니터링 어려움, 물리적 접촉 기회 저하
	열악한 비대면 장비 및 설비	매체 미보유, 네트워크 불안정
	청소년지도자 업무 과중	컨텐츠 제작 어려움, 업무 범위 확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견한 기회	선택적 프로그램 참여 용이	개인화된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부담 완화, 이동거리 축소
	집중 촉진적 분위기 조성	물리적 접촉 기회 저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부담 완화
청소년지도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	비대면 컨텐츠 개발 역량	비대면 컨텐츠 개발 역량
바람직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지원	온라인 여건 개선	매체 미보유, 네트워크 불안정
	지침 신설 또는 개정	지침 신설 또는 개정

따라 분석하였다[50]. 첫째, 전화 인터뷰 종료 후 녹취된 자료를 전사하였으며, 메신저 인터뷰의 경우 모든 대화내역을 자료로 만들었다. 둘째, 전사된 자료를 주제별로 약호화(coding)하였는데, 전사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텍스트의 특정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견한 기회, 청소년지도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 바람직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지원 등 4개의 주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텍스트를 코드화하여 해당 주제에 포함시켰다. 셋째, 하위주제를 생성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이 단계에서는 연구진이 함께 텍스트를 분석 및 범주화하고, 동일한 현상을 한 개의 새로운 단위로 묶는 방식으로 하위주제를 생성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하위주제 및 코드의 구조는 <표 2>와 같다.

IV. 연구결과

1.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 청소년 프로그램 축소 및 비대면 활동에 대한 요구 증대

체험과 상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상, 코로나19 이전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대면형식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인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함께 국민들이 대면활동을 삼가게 되고, 이로 인해 주로 대면형식으로 제공되던 청소년 프로그램은 상당부분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D: 각종 큰 행사들이 취소와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거나 취소가 됨으로써 청소년지도사로서 낙심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답니다.

F: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기관에 편하게 오던 곳인데 지금은 썰렁하고 심심하고 그렇네요. ... (중략) ...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한동안 진행조차 하지 못할 만큼 상황이 나빴습니다.

G: 우리 시설은 다목적시설이라 공간을 폐쇄한 상황에서 방역과 일정 조정이 주 업무가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어려웠던 부분은 일정을 조정하고, 방역을 위한 예산 확보, 코로나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회의의 연속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처음

접하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 보다는 일정을 조정하는 정도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인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청소년 프로그램도 대인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A: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워져 운영횟수가 감소한 반면에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기에 학교방문형 또는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요청이 증가했습니다.

F: 코로나19로 인해 변화의 필요성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방식만 고집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예비하여 나아가는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비대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비대면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자들은 기존 대면형식을 비대면 형식으로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환경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도 자치기구를 운영하고 이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의 기능을 숙지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추가지급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 (중략) ...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도 어려웠지만 청소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기 위해 영상제작 등의 작업을 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C: 사이버로 상담은 계속 해왔지만, 특히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어떤 장비들을 사야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등을 새롭게 해야했어서 어렵고 낯설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A: 코로나19에 따른 변화로 진로체험도 상당 부분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 (중략) ... 원격수업에서도 청소년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직접체험의 단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다. 비대면 환경으로 인한 상호작용 저하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과 직접 마주하여 교감하고, 청소년 간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상호작용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 의사소통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했구요. 얼굴이 보여야 하는 화상, 목소리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부담스러운 친구들이 많다보니 수업에 잘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B: 청소년활동은 서로 만나 또래들 사이에서 부딪히고 의견도 충돌하며 갈등도 해결해 가면서 몸과 마음이 성장하는 과정인데 대면활동이 중단되다 보니 많은 제약이 따를 것 같다. 온라인으로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대면 활동에 비해 친분이나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이 따른다.

라.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 열악한 설비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통신을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갖춰져야 하며,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화상·음성 송수신 기능을 갖춘 기기나 화상카메라, 헤드셋 등의 설비가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제외하면,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적절한 네트워크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E: 한참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불분명한 감염경로로 휴관을 해야 할 당시, 검정고시 시험 응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속적으로 휴관을 반복하다 보니 교육의 기회가 부족해지고 학습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해진 수업시간에 화상회의를 오픈하여 모든 청소년들에게 회의 링크를 전달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노트북이 없는 친구들은 핸

드폰을 통해서라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구요. 불안정한 네트워크 환경과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검정고시 시험 응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진행은 해야 했거든요.

마. 청소년지도자들의 업무 과중

상당수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청소년지도자들은 비대면 활동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습득해야만 했다. 그리고 비대면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기존과 다른 새로운 업무가 청소년지도자에게 부과되었으며, 청소년지도자들은 업무가 과중된 것으로 보인다.

G: 영상편집에 익숙한 직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영상을 만들기 위해 기능을 익히는 것도 어려웠고 시스템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일거리를 들고 집으로 가서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들이 자주 있었지만 이렇게 일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부분도 어려웠습니다.

H: 개학연기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긴급돌봄 기관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으니 교육실무를 보는 선생님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일이 늘어난거죠. 기획 운영하는 역할 외에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해야 하고 오후 방과후 이후 돌봄인데 종일 아이들 돌봄도 해야하고 많이 어려웠죠.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 (중략) ... 종일돌봄으로 전환이 되었지만 비용추가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었어요.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중되었죠.

2. 코로나19 상황에서 발견한 기회

가. 청소년 개인별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선택 및 참여 확대

기존 청소년 프로그램은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일부 프로그램은 학교 혹은 학급 단위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었다.

A: 청소년진로박람회는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진로체험부스를 제공하는 축제성 행사였습니다. 2020년의 경우 집합행사로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온라인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진로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급단위로 진행되던 학교 연계프로그램과 달리 학교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시기와 체험을 정해서 개별적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키트배송, 클래스·영상 구성 등 각 신청대상자 별로 개인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청소년 프로그램의 접근성 향상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특정 장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어디에서든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에 방문하기 어려웠던 청소년들도 손쉽게 청소년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었다.

C: 그동안 상담이 필요했는데 상담실에 잘 찾아오지 못했던 청소년이나 청소년으로 인해 고민하는 학부모들도 온라인상담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플랫폼 개발이 더 활발해지고 정착된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B: 활동을 하기 위해 수련관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 (후략).

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청소년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상호작용이 원활했던 기존 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장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온라인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과정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B: 청소년들은 또래끼리 모이면 장난도 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느라 회의의 본질을 잊을 때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활동에서는 친구가 옆에 없어서 서로의 분위기도 모르고 잡담을 할 수가 없었기에 회의에 좀 더 집중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중략) ... 자신이 익숙한 장소에서 온라인 활동을 진행하니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발표할 수 있는 것 같다.

3. 청소년지도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 비대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역량

오프라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해왔던 청소년지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비대면으로도 효과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었다.

A: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필요한 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트렌디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잘 찾아내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게 되면서 기관별 또는 지역별 특색을 살림으로써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G: 비대면이라는 상황은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짧은 영상 등을 제작했는데 이 과정은 촬영과 영상제작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많지 않다는 점, 앞으로 비대면 상황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을 누구나 할 수 있게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4. 바람직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지원

가. 청소년들의 온라인 프로그램 참여 환경 개선

코로나19 상황에서 앞으로 다수의 청소년 프로그램들은 비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모든 청소년들이 온라인 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간 학습 및 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B: 실제 이번 활동을 하면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연결이 된다하더라도 끊김 현상이 있거나 버퍼링 상태가 길어 튕겨져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온라인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인터넷 보급이 좀 더 보충되어야 할 것 같다. 접속자가 많을 경우 끊김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를 보완해주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컴퓨터 보급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

나. 변화한 일의 형태에 따른 지침 신설 또는 개정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현장은 전례(前例)없는 다양한 변화를 겪었지만, 기존과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침(guideline)이 마련되지 않아 청소년지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H: 2단계인 현재도 돌봄 부분은 여전히 지침이 없어요. 특히 아동돌봄 체계 중 청소년 돌봄에 대한 안전지대가 턱없이 부족한거죠. 코로나-19로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청소년에게 설문한 결과 중에 점심을 해결하는 문제가 어려웠다는 답변이 있잖아요. ... (중략) ...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지역교육복지 체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민·관의 협력을 방해하는 제도적 한계와 행정기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돌봄 지자체 강화 방안, 청소년 돌봄에 대한 대안 모색 등 함께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지도자의 겪은 경험과 요구되는 역량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지도자 8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메신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발견한 기회, 청소년지도자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과 바람직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적 지원 등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청소년지도자가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는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분야 종사자의 어려움을 제시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41, 44, 45, 47].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한 정부정책에 따라 청소년지도자가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소년 프로그램은 대부분 대면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으며,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대면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장비를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은 원활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습 및 교육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둘째, 청소년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비해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처음에는 원격수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나 차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45, 47].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적절한 장비만 갖춰지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 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 일부 프로그램은 학교나 학급 단위로 참여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참여하는 것이 용이했으며, 일부 온라인 프로그램에서는 오프라인보다 청소년들이 더 집중하고 참여적으로 행동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자는 비대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 경험과 인식을 조사한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3, 22]. 온라인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청소년지도자에게 요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나아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역량, ICT화된 청소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 등을 갖춘 청소년지도자가 요구될 것이다[38]. 그런데 지금까지 청소년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하고 청소년 기관 및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26, 34, 35, 36], 청소년 온라인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할 수 있는 역량, 최첨단 청소년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관심이 요구된다.

넷째, 비대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청소년들이 비대면 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컴퓨터 등의 장비를 지원하고, 비대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원활히 개발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간의 학습 및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당연하다. 한편, 긍정적 관점에서 청소년개발은 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기관의 협력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청소년 기관이 청소년 부문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발달에 기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기관과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22].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危機)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뜻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은 청소년지도자는 상당한 시련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청소년지도자의 활동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청소년지도자와 유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여분의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성과를 거둔 ‘긍정적 이탈자(positive deviance)’를 찾아서 그들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51]. 또한 우

수한 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의 차원을 넘어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함께 학습하고, 행동으로 생각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을 위한 이수과목 및 시험과목에서 비대면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청소년지도자는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많은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온라인 프로그램의 설계, 개발, 운영 등을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청소년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이 새로운 기준(new-normal)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지도자를 양성 및 재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청소년 프로그램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과 검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19는 청소년 기관과 청소년지도자에게 있어서 비연속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일상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보다 더 많은 학습과 혁신이 요구되며, 조직의 요소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조직변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실행할 기회, 새로운 방식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보상,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직무수행을 지원할 적절한 자원, 효과적인 변화 위한 행동계획과 피드백 등을 포함한다[40].

넷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현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교육 분야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사, 학생 및 학부모의 경험 및 인식을 전국 혹은 지자체 단위로 조사하였으며, 원격교육 및 교육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청소년 분야도 긍정적 청소년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개발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와 연구가 요구된다.

다섯째, 온라인 교육의 확산이 점점 더 가속화되며, 온라인 교육 추세로 온라인 이전 시기에 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52]. 청소년 영역에서도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며, 더 많은 청소년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다. 다만 참여 청소년이 늘어나면 온라인 활동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활동의 목표와 효과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온라인 활동 영역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은 8명의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전체 청소년지도사로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경험과 요구되는 역량에 관한 양적 연구, 청소년 기관별 청소년지도자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지도자의 디지털 역량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럽의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digital youth work에서는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들과 원활히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게임 토너먼트를 열거나 온라인 밴드 협연, 인터넷 방송 운영 등 청소년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자들이 함양해야 할 디지털 역량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역량들은 몇몇 소프트웨어의 활용방법 등 단순히 디지털 설비 활용법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의 디지털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례[53, 54], 수업과정 탐구[55], 교수자에게 요구되는 비대면 수업 역량[56], 교육효과성 영향요인[57] 등의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청소년 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형태의 청소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Lee JM, Wei L. (2020, December 18). Asia trounces U.S. in health-efficiency index amid pandemic.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12-18/asia-trounces-u-s-in-health-efficiency-index-amid-pandemic>.
2. 김윤나, 이희연 (2020).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와 소년보호정책적 함의. 소년보호연구, 33(2), pp. 1-27. (Kim YN, Lee HY. (2020). Changes in youth life after Corona 19 implications of juvenile protection policy. Korean Juvenile Protection Review, 33(2), 1-27)
DOI : 10.35930/KJPR.33.2.1
3. 손진희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의 학습권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13(3), pp. 87-112. (Son JH. (2020). A study on the youth's educational rights in COVID-19 situation.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13(3), 87-112)
<https://doi.org/10.35881/HLER.2020.13.3.4>.
4. 계보경, 김혜숙, 이용상, 김상운, 손정은, 백송이 (2020).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 교육 경험 및 인식분석: 기초통계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ye BK, Kim HS, Lee YS, Kim SW, Son JE, Baek SY. (2020). The experience and perception on distance education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Focusing on basic statistics results (GM 2020-11).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5. 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 (2020). 코로나-19와 교육: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2020-08. 경기도교육연구원. (Lee JY, Park MH, So MY, Ahn SH. (2020). COVID-19 and education: Focusing on life and perception of school members. (Issue Paper 2020-08). Gyeonggi Institute of Education)
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20).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청소년, 보호자 체감도 조사 및 대응방안.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 2020 통권 2권. 부산: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2020). Changed daily life due to COVID-19: Investigating experience of youth and their parents and the countermeasures (Youth Counseling Issue Paper 2020-2).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7. OECD. (2020). Youth and COVID-19: Response, recovery and resilience.
<http://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youth-and-covid-19-response-recovery-and-resilience-c40e61c6/>
8. 여성가족부 (2020.12.17). 코로나 우울,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와 상의하세요! 보도자료.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0, December 17). COVID-19 blue, consult with

- the Youth Cyber Counseling Center! [Press release]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8993
9. 권용국 (2020. 4. 1). 김포시, 코로나19 무증상 해외입국자 임시 격리시설로 청소년수련원 활용. 인천일보(2020. 4. 1.).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482>
(Kwon YK. (2020, April 1). Use a youth training center as a temporary quarantine facility for those entering overseas with asymptomatic COVID-19. Incheon Ilbo.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 idxno=1031482>)
1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0.10.30). 청소년축제,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즐겨요!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주간 운영. 보도자료(2020.10.3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orea Youth Work Agency. (2020, October 30). Youth festival, enjoy online safely! Operation of youth matching madang operation week. [Press release].
https://www.kywa.or.kr/pressinfo/report_view.jsp?no=28610)
1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0.10.22). 포스트코로나 시대 청소년활동 운영사례 공유페이지 개설. 보도자료(2020.10.2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orea Youth Work Agency. (2020, October 22). Post-corona era youth activity case sharing page opened. [Press release].
https://www.kywa.or.kr/pressinfo/report_view.jsp?no=28589)
12. 이윤주, 최홍일, 변주영, 김주영, 김다인, 홍정윤, 이미영 (2020). COVID-19가 초래한 비대면(언택트) 시기, 청소년활동의 재도약: 청소년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pp. 143-172. (Lee YJ, CHoi HI, Byun JY Kim JY, Kim DI, Hong JY, Lee MY. (2020). Re-leap of youth activities at untact period caused by COVID-19: Focusing on online and offline youth participation to rear them as active citizens. The Journal of Korea Youth Activity, 6(4), 143-172). <http://dx.doi.org/10.36697/skya.2020.6.4.143>.
13. 박선영 (202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pp. 173-194. (Park SY. (2020). Challenges of youth work and youth policy in the post COVID-19 era. The Journal of Korea Youth Activity, 6(4), 173-194)
<http://dx.doi.org/10.36697/skya.2020.6.4.173>
14. 김진호 (2006). 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의미와 정책적 시사점. 미래청소년학회지, 3(2), pp. 71-88. (Kim JH. (2006). Meaning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Implication on Youth Policy in Korea.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3(2), 71-88)
15. 노혁, 권일남 (2003). 청소년수련활동 구성체계.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청소년 수련활동론(pp. 163-279). 서울: 교육과학사. (Roh H, Kwon IN. (2003). Structure of youth training activities. Korea Youth Development Institute (ed.), Youth Training Activity Theory(pp. 163-279). Seoul: KYOYOOKBOOK)

16. 법제처 (2020). 청소년 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검색일: 2020.11.23.).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Framework Act on Youth.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View.do?hseq=49201&lang=ENG(access date: 2020.11.23.)
17. 김진호, 권일남, 이광호, 최창욱 (2013). 청소년활동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Kim JH, Kwon IN, Lee KH, Choi CW. (2013). Youth Activity Theor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18. Sercombe, H. (2010). Youth Work Ethics. Los Angeles: SAGE.
19. 박선영 (2017). 청소년학 이론적 모델구축을 위한 Youth Work(청소년활동)의 역사적 조망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4(2), pp. 539-558. (Park SY. (2017). An analysis study on youth work in the historical context for developing youth work theor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2), 539-558). <http://dx.doi.org/10.21509/KJYS.2017.02.24.2.539>.
20. Davies, B. (2010). What do you mean by youth work?, In Batsleer, J. & Davies, B.(eds). What is youth work? Exeter: Learning Matter,(pp. 1-6.)
21. Council of Europe (2015). Council of Europe Youth Work Portfolio: A tool for the assessment and development of youth work competence. France: Council of Europe.
<https://www.coe.int/en/web/youth-portfolio/youth-work-competence>
22. Youth Partnership (2020). Effect of Vovid-19 across youth work and youth activities. European Union & Council of Europe.
<https://pjp-eu.coe.int/documents/42128013/72351197/CMJ+survey+PEYR+final.pdf/3bae8038-2744-c280-6cae-08d670b8489e>
23. 고편재, 김용진, 권일남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 활동방향과 과제 탐색.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pp. 21-41. (Ko PJ, Kim YJ, Kwon IN. (2020). A Study on directions and challenges of youth activities in the COVID-19. The Journal of Korea Youth Activity, 6(2), 21-41). <http://dx.doi.org/10.36697/skya.2020.6.4.21>.
24. Robbins, S. P. (2005). Organizational behavior(11th edition). 김지성 외(역)(2005). 조직행동론(11판). Pearson Education Korea LTD.
25. 한상철, 권두승, 방희정, 설인자, 김혜원 (2001). 청소년지도론. 학지사. (Han SC, Kwon DS, Bang HJ, Seol IJ, Kim HW. (2001). Youth guidance theory. Seoul: Hakjisa)
26. 장미 (2011). 청소년지도자 직무역량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8, pp. 114-144. (Jang M. (2011). The study on development of the job competency scale for youth leader. Forum for Youth Culture, 28, 113-144)
27. 정미나, 문호영 (2019). 청소년지도자 관련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pp. 99-122. (Jung MN, Moon HY. (2019).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youth workers. Forum for Youth

- Culture, 57, 99-122. <http://dx.doi.org/10.17854/ffyc.2019.01.57.99>)
28. 한상철 (2014). 청소년지도자와 기관운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학개론(2판)(pp. 315-337), 교육과학사. (Han SC. (2014). Youth leaders and operation of institutio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troduction to Youth Studies (2nd ed.)(pp. 315-337), Seoul: KYOYOOKBOOK)
 29.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John Wiley & Sons, Inc.
 30. 김진모 (2001).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직무역량 규명: 학습지 기업을 대상으로. 농촌지도학회지, 8(2), pp. 159-177. (Kim JM. (2001). Identification of Job Competenci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 The Case of a Company which Provides a Preschool Education Program.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8(2), 159-177)
 31. 전영욱, 김진모 (2005). 기업체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핵심직무역량모델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7(2), pp. 111-138. (Jeon YU, Kim JM. (2005). Developing a Core Competency Model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actitioners in Corporat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37(2), 111-138)
 32. Evrard, G. & Bergstein, R. (2016). European Training Strategy: A Competence Model for Youth Workers to Work Internationally. Salto-youth Training-And-Cooperation. https://www.salto-youth.net/downloads/4-17-3460/CompetencemodelForYoutworker_Online-web.pdf
 33. 주경필 (2014). 서구사회 청소년업의 전문화에 관한 고찰: 미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업종사자 핵심역량모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8, pp. 126-148. (Joo KP. (2014). Professionalism of Youth Work in Western Society: A Case Study of Youth Worker Core Competencies of the U.S. Governmental Agencies. Forum For Youth Culture, 38, 126-148) DOI : 10.17854/ffyc.2014.04.38.125.
 34. 서희정, 구경희, 이은진 (2016). 청소년지도사의 활동역량 탐색. 청소년문화포럼, 48, pp. 29-60. (Seo HJ, Ku, KH, Lee EJ. (2016). A study on youth worker's activity competency. Forum For Youth Culture, 48, 29-60. <http://dx.doi.org/10.17854/ffyc.2016.10.48.29>)
 35. 서희정 (2018). 청소년지도사의 활동역량모델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pp. 125-153. (Seo HJ. (2018). 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Youth Work Competency Model for Youth Workers. Forum For Youth Culture, 2018.4, 125-153) <http://dx.doi.org/10.17854/ffyc.2018.04.54.125>.
 36. 한국산업인력공단. www.ncs.go.kr (2020.12.1.에서 검색)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2020).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Youth guidance. Available from: <https://www.ncs.go.kr/unity/th03/ncsSearchMain.do> (access date: 2020.12.1.))
 37. 김영인 (2012). 청소년활동지도자의 공감적 리더십 탐색. 미래청소년학회지, 9(4), pp. 1-29.

- (Kim YI. (2012). A Study on the Empathic Leadership of Youth Worker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9(4), 1-29)
38. 마상욱 (2019).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청소년활동방향 연구.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1), pp. 61-80. (Ma SU. (2019). A Study on Youth Activit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tudies on Korean Youth Activity*, 5(1), 61-80) DOI : 10.36697/skya.2019.5.1.61.
39. Cummings, T. G., & Worley, C. G. (2015). *Organization Development and Change*(10th ed.). Cengage Learning.
40. Miller, J. V. (2003). *Managing the Human Aspect of Organizational Change*. A. M. Gilley, J. L. Callahan, & L. L. Bierema.(Eds). *Critical Issues In HRD: A New Agend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erseus Publishing.
41. 김혜진 (2020). 코로나19에 따른 초등 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pp. 613-639. (Kim HJ. (2020). A Study on the Analysis of Online Class Experienc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llowed by COVID-19.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0), 613-639)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20.613>
42. 김민정, 김희영, 김남연, 문가영 (2020). 유아 대상 원격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탐색. *한국유아교육연구*, 22(3), pp. 201-229. (Kim MJ, Kim HY, Kim NY, Moon GY. (2020). Exploring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s of distanc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2(3), 201-229)
<https://doi.org/10.15409/riece.2020.22.3.10>
43. 양동석, 조건상, 유은혜 (2020).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현실과 개선방안.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6(2), pp. 131-144. (Yang, DS., Cho, GS., Yoo, EH. (2020). The Reality and Improvement Plan of Element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Class to Deal with COVID-19.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26(2), 131-144)
<https://doi.org/10.26844/ksepe.2020.26.2.131>
44. 신서영, 박창언 (2020).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2), pp. 147-167. (Shin, SY., Park, CU. (2020). Exploring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 of online class in operating basic curriculum. *Journal of Narrative and Educational Research*, 8(2), 147~167). <https://doi.org/10.25051/jner080207>
45. 윤태성, 류수연, 임경원 (2020). 충남지역 특수학교 교사의 원격수업 운영 경험과 그 의미.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3(3), pp. 179-209. (Yoon TS, Ryu SY, Lim KW. (2020). A Study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 on Distance Class in Special School in Chung-nam Provinc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13(3), 179-209)

<https://doi.org/10.24005/seci.2020.13.3.179>.

46. 이해란, 박창언, 이나영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적장애 특수학교 초등특수교사의 온라인수업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문화연구*, 26(5), pp. 589-612. (Lee HR, Park, CU, Lee, NY. Online Class Experience of Elementary Special Teachers working at Special Schools for Intellectual Disab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A Case Stud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6(5), 589-612). <https://doi.org/10.24159/joec.2020.26.5.589>.
47. 임은정, 권수미 (2020). 비대면 음악 온라인 원격 수업 실태 연구. *예술교육연구*, 18(3), pp. 165-184. (Lim EJ, Kwon SM. (2020). A Study on the Status of Non-face-to-face Music Online Remote Classes.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8(3), 165-184)
48. 김서진, 문영 (2020).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예술교육: 언택트 시대의 몸교육에 관한 소고.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8(3), pp. 87-100. (Kim SJ, Moon Y. (2020). Arts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post-COVID-19: A study on Body-based Education in the Untact Era. *The Korean Journal of Dance*, 78(3), 87-100). <http://dx.doi.org/10.21317/ksd.78.3.5>.
49. 성태제, 시기자 (2006). *연구방법론*. 학지사. (Seong TJ, Si GJ. (2006). *Research methodology*. Seoul: Hakjisa)
50. 이용숙, 김영천 (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교육과학사. (Lee YS, Kim YC. (ed.) (1998).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Methods and Applications*. Seoul: KYOYOOKBOOK)
51. Pascale, R., Sternin, J., & Sternin, M.(2010). *The Power of Positive Deviance: How Unlikely Innovators Solve the World's Toughest Problems*. (박홍경(2013). *긍정적 이탈: 불가능 속에서도 누군가는 성과를 낸다*. 알에이치코리아)
52. Schenker, J. (2020). *The Future After COVID: Futurist Expectations for Chang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박성현(역)(2020). *코로나 이후의 세계*. 미디어숲)
53. 여희영 (2020). 초등학생 기악실기 개인레슨의 비대면 실기교육 선호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5(5), pp. 103-121. (Yeo HY. (2020). A Study on Preference in Online instrumental music lesson: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15(5), 103-121). <http://dx.doi.org/10.15815/kjcaes.2020.15.5.103>.
54. 장경원 (2020). 비대면 원격교육 상황에서의 프로젝트학습 사례 연구: 학습자들의 학습경험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36(3), 775-804. (Chang KW. (2020). A Case Study on Project Based Learning in Distance Education: Focusing on Learners' Learning Experiences.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6(3), 775-804). <http://dx.doi.org/10.17232/KSET.36.3.775>
55. 한화정, 심규철 (2020). 과학 영재를 위한 감염병 관련 비대면 프로젝트 활동 분석 연구. *생물교육*, 48(4), 621-630. (Han HJ, Shim KC. (2020). An Analysis of a Contactless Project

- Activitie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for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Biology Education*, 48(4), 621-630). <http://dx.doi.org/10.15717/bioedu.2020.48.4.621>.
56. 오영범 (2020). 비대면 원격수업 사례분석을 통한 교수자의 원격수업 역량 탐색: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중심으로. *교육공학연구*, 36(3), 715-744. (Oh YB. (2020). Exploring Teacher's Distance Instruction Competencies through non face-to-face Distance Instruction Case Analysis: Based on synchronous distance instruc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6(3), 715-744) <http://dx.doi.org/10.17232/KSET.36.3.715>
57. 정희정 (2020). 비대면 영어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학습자 그룹별 차이검증. *영어교육연구*, 32(4), 225-247. (Jung HJ. (2020). Determinants influencing untact English learn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learner groups. *English Language Teaching*, 32(4), 225-247). <http://dx.doi.org/10.17936/pkelt.2020.32.4.12>.